

안성 공도~양성간 321호지방도 확 · 포장공사 구간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박 선 경
김 길 식
이 승 훈



차 례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 및 그 주변 환경	6
1. 자연 · 지리적 환경	6
2. 고고 · 역사적 환경	7
III. 조사내용	12
1) 1구간	12
2) 2구간	13
3) 3구간	14
4) 4구간	14
5) 5구간	14
6) 6구간	15
6) 7구간	15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7

지도 및 도면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1/50,000)	19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1/25,000)	20
도면 3.	조사대상지 현황측량도(1/10,000)	21
도면 4.	조사대상지 구간구분 및 촬영지점 위치도(1/20,000)	22
도면 5.	1구간 현황도(1/5,000)	23
도면 6.	2구간 현황도(1/5,000)	24
도면 7.	3구간 현황도(1/5,000)	25
도면 8.	4구간 현황도(1/5,000)	26
도면 9.	5구간 현황도(1/5,000)	27
도면 10.	6구간 현황도(1/5,000)	28
도면 11.	7구간 현황도(1/5,000)	29

사 진

사진 1.	1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① 남→북)	31
사진 2.	1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② 남→북)	31
사진 3.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③ 북→남)	32
사진 4.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③ 남→북)	32
사진 5.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④ 북→남)	33
사진 6.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④ 남→북)	33
사진 7.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⑤ 북→남)	34
사진 8.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⑤ 남→북)	34
사진 9.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⑥ 북→남)	35
사진 10.	3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⑥ 남→북)	35
사진 11.	3구간 도로 신설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⑥ 남→북)	36
사진 12.	3구간 도로 신설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⑥ 북→남)	36
사진 13.	4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⑦ 남→북)	37
사진 14.	4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⑧ 북→남)	37

사진 15.	4구간 중앙부 전경(촬영지점 ⑧ 남→북)	38
사진 16.	4구간 중앙부 전경(촬영지점 ⑨ 북→남)	38
사진 17.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⑨ 남→북)	39
사진 18.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⑩ 북→남)	39
사진 19.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세부 전경(북→남)	40
사진 20.	4구간 북쪽 배미마을 입구 노거수	40
사진 21.	5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⑩ 남→북)	41
사진 22.	5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⑪ 북→남)	41
사진 23.	5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⑪ 남→북)	42
사진 24.	5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⑫ 북→남)	42
사진 25.	6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⑫ 남→북)	43
사진 26.	6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⑬ 북→남)	43
사진 27.	6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⑬ 남→북)	44
사진 28.	6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⑭ 북→남)	44
사진 29.	7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⑭ 남→북)	45
사진 30.	7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⑮ 북→남)	45
사진 31.	7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⑮ 남→북)	46
사진 32.	7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⑯ 북→남)	46
사진 33.	공도택지지구 내 만정리 유적공원	47
사진 34.	용두리유적 현재 모습(물류단지 조성 후)	47
사진 35.	반제리유적 현재 모습(도로개설 후 -남에서)	48
사진 36.	반제리유적 현재 모습(도로개설 후 -북에서)	48
사진 37.	무한성 내 운수암 전경	49
사진 38.	무한성 남쪽 성벽 근경	49
사진 39.	무한성 동쪽 성벽 세부	50
사진 40.	무한성 서쪽 성벽 세부	50
사진 41.	덕봉서원 전경	51
사진 42.	봉한정 효자비각	51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안성시 공도 ~ 양성간 321호지방도 확 · 포장공사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2차선인 안성시 공도에서 양성에 이르는 321호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 · 포장하고자 계획하고, (주)한국해외기술공사 · 동부엔지니어링(주)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兩社에서는 도로 확 · 포장공사와 관련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였으며, 용인대학교박물관은 2008년 6월 대상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양성읍 321호지방도 확 · 포장 구간 주변

○ 조사면적 : 112,000㎡ (총연장 : 5.6km , 너비 20.0m)

○ 조사기간 : 2008년 05월 19일 ~ 2008년 06월 20일

○ 조사의뢰기관 : (주)한국해외기술공사 · 동부엔지니어링(주)

○ 조사단 구성

- 조사 단장 : 박선경(용인대학교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김길식(용인대학교박물관 학예과장 / 문화재학과 교수)
- 조 사 원 : 이승훈(용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조사보조원 : 차윤희(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조교)

이 외 김예주(숭실대학교 대학원), 추가영(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3년)이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II. 조사지역 및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한반도 중부 경기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는 북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으로는 오산시 평택시,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 충북 진천군 및 음성군과 접해 있다. 지형적으로는 노년기 구릉성 산지인 차령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안성지역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의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북쪽과 동남쪽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구릉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안성시의 전체 면적은 552.79km²인데 이중 해발 400~500m의 구릉성 산지가 전체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시의 산지는 충북 진천과의 경계를 이루는 차령산맥 줄기의 덕성산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지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덕성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서운산(574m), 동쪽으로는 백운산(345m)·마이산(471m)으로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안성시의 중앙에 있는 비봉산(230m), 시관산(514m), 천덕산(355m), 덕암산(163m), 고성산(298m), 백련봉으로 이어진다.

안성시를 兩分하고 있는 차령산맥의 동쪽으로는 청미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안성천과 조령천, 한천이 합류하여 서해로 흐른다. 청미천 연안에는 침식지형과 분지가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고, 안성천 주변을 따라서는 비옥한 퇴적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안성시의 지반은 대체로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쪽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북쪽에서는 단상층군에 속하는 편암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안성시의 서쪽에 위치한 孔道邑에서 陽城面으로 통하는 총연장 5.6km의 321호지방도 구간이다. 이곳은 서쪽에 위치한 백운산과 고성산의 남동쪽 끝자락에 해당되며, 산지의 말단부로서 얇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 구릉성 산지의 동쪽에는 한천의 퇴적과정에서 형성된 넓은 평야가 있다. 조사대상구간은 행정구역상으로 공도읍 만정리와 양성면 방신리 일대에 걸쳐 있다. 현재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 구간은 321호지방도 중, 공도읍을 동-서로 지나는 38번국도 북편에 위치한 孔道地區의 북단에서 안성시에서 양성을 지나 용인으로 통하는 23번지방도와 접하는 구간으로, 조사대상지는 기존의 도로를 포함한 확·포장공사가 시행될 20m 너비이다. 대부분 현재의 도로를 따라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을 위해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이 있다. 공사시행 범위는 총연장이 5.6km, 너비는 20.0m로 확장될 계획이다.

2. 고고·역사적 환경

안성시는 최근 경기 남부권의 활발한 개발로 인하여 문화재 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구간 내에 위치한 반제리 유적, 공도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위치한 만정리 유적 등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됨으로써 안성지역 내에 다양하고도 많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두 유적은 이번 조사대상지와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같은 구릉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안성시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지 인근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삼국, 고려~조선시대 등 각 시대별로 나누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에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만정리 유적과 반제리 유적을 들 수 있다. 만정리 유적¹⁾은 공도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지금은 조사가 완료되어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이 조사되었다. 반제리 유적²⁾에서는 갯신세층(고토양층)에서 구석기시대 굽개 1점이 출토되었다. 이보다 앞선 안성시 전체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³⁾에 의하면 안성시의 3개 지점에서 구석기시대 석기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수습된 유물은 자르개, 몸돌, 굽개, 짝개, 격지 등이며, 이들 석기들이 수습된 지점은 고삼면에 위치한 고삼저수지 남쪽의 삼은리, 공도면 용두리, 송두리 등이다. 이 중 용두리와 송두리는 만정리 유적과 서로 인접해 있어 이 일대에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조사된 바 없으나, 봉업사지의 발굴조사⁴⁾ 과정에서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고 안성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인접한 용인시와 시흥시 등의 경기 내륙 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취락유적들이 속속 조사됨으로써 비교적 큰 하천인 안성천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분포한 공도읍 반제리 유적과 만정리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조사되었으며, 고인들은 만정리, 송두리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면 방신리에서는 무문토기 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안법고등학교에도 채집된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반제리 유적은 고속국도 제 40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조사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를 비롯해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72기와 환

1)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敷地 内 遺蹟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

2)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安城 盤諸里遺蹟』

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 京畿道博物館, 2005,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호, 목책열, 구상유구, 토광묘, 수혈,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 석실분과 석곽분 1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7기도 함께 조사되는 등 총 13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⁵⁾.

만정리 유적⁶⁾이 위치한 공도읍 만정리 일대는 이미 택지개발 공사로 인해 원 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택지개발 공사에 앞서 실시된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등 다양한 시대의 각종 유구들이 분포되어 있는 복합유적임이 확인되었다. 일부 유구의 경우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현재 만정리 유적공원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만정리 고인돌은 만정리 신기마을에 자리하고 있었다⁷⁾. 배나무 과수원의 높은 곳에서 상석으로 추정되는 덮개돌이 있었으며, 상석의 규모는 길이 2.6m, 너비 1.3m, 두께 1m 가량이었다. 지석묘는 택지개발 공사 시행 시 발굴조사 되었다. 승두리 고인돌⁸⁾은 공도면 승두리 난촌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공도 면소재지에서 난촌마을로 가는 낮은 구릉상에 있다. 상석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석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규모는 길이 4.5m, 너비 1m가량이고, 재질은 화강암이다. 상부에 8개의 성혈이 확인되었다.

방신리 무문토기 산포지는 방신리 산 42번지 일대로, 후술할 무한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되어 보고되었다. 한편 안범고등학교 향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청동기시대 유물은 석부 2점, 석촉과 석도 각 1점씩이다. 유물의 출토지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⁹⁾.

원삼국시대의 유적이 정식 발굴 조사되어 알려진 유적은 없지만 마형대구, 타날문단 경호 등이 출토되어 신고된 안성시 인지동 유적¹⁰⁾이 알려져 있다. 최근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마한의 특징적인 묘제인 주구토광묘와, 공반되어 출토되는 마형대구, 타날문토기 등의 조사 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기의 인지동 유적 등의 예로 보아 안성지역도 경기남부와 충청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구토광묘 유적이 많이 분포할 것으로 여겨진다.

5)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安城 盤諸里遺蹟』

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敷地 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 1~5차.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7) 오환일·박정근, 1992, 「안성지역의 유적과 유물-선사시대를 중심으로」 『柳韓工專論文集』 14.

8) 오환일·박정근, 1992, 위 글.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0) 徐五善, 1990, 「天安 靑堂洞 및 安城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최근 안성지역의 도로건설 구간과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유적·유물들이 확인된¹¹⁾ 데 이어, 도기동 유적이 조사·보고되어 이 지역에 있어서의 백제 문화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도기동 유적에서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축조된 석곽묘 1기·토광묘 37기·주거지3기·수혈유구 1기 등의 백제 유구들과 더불어 나말여초 기와가마 3기, 고려시대 건물지 3동, 조선시대 건물지 1동·주거지 2기·조선시대 토광묘 76기 등도 함께 조사되었다. 특히 백제 고분과 주거지 등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한성도읍기 백제시대 유적이 극히 드물게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백으로 남아있던 경기 남부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상과 백제한성도읍기의 중앙과 안성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석곽묘와 토광묘(목관·목곽)에서는 다량의 연철·경질의 백제토기와 철촉, 철모, 환두대도 등의 무기와 도끼 등의 농공구류 등이 다량 출토되어 한성도읍기의 주변지역 출토 유물들과 대비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¹²⁾.

토기 산포지는 방신리와 송두리에 해당되는데, 방신리 토기 산포지는 후술할 무한성과 동일한 위치에 해당된다. 송두리 토기 산포지는 안성 IC의 동남쪽에 위치한 얕은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경질토기와 백자편이 함께 출토된다고 한다¹³⁾.

안성시에는 총 12개소의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조사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것은 무한성, 만정리 토성, 진사리 토성, 고성산성 등 4개소이다. 이 중 조사대상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무한성은 일명 무양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안성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성면 방신리 산 2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양성현 고적조·성지조에 “현 남쪽 12리 지점에 있으며, 석축이고 둘레는 1,305척이며 성안에는 못 하나가 있다”고 한다. 광무 3년(1899)에 간행된 『양서읍지』 에도 “무한성 남단 아래 고성이 있어 속칭 옛 고을 터가 완전하다”고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성은 산의 정상부에 쌓은 테피식 산성으로 일부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산성 내에서 건물지의 흔적과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산성의 축성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지만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못은 현재 운수암의 대웅전 마당에 해당되는데, 연못지라고 하며, 지금도 우물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운수암을 증축하면서 메워진 연못이 산성의 저수시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지는 동문지, 남문지, 북문지 등 모두 3개가 있다. 이 중 동문지는 현재 운수암과 산성으로 통하는 주출입로로 사용되고

11) 畿湖文化財研究院, 2006, 『안성 진사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2)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안성 도기동유적』

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원 글.

있으나 문지와 관련된 시설이 남아있지 않아 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무한성 내에 분포하고 있었던 건물지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테피식 산성을 축조하면서 성 내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평탄대지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성의 외성이라 판단되는 포곡식 산성의 계곡부 완경사 지역을 건물지로 이용한 것이다. 테피식 산성에서 가장 큰 건물지는 현재 운수암이 들어선 곳으로 이 지역은 내성벽 축조시 성벽의 상면에 생겨난 넓은 대지를 건물로 이용한 것이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운수암 반대쪽 서벽 상면과 남벽 상면에도 상당히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였음을 추정케 한다.

외성의 건물지는 제일 낮은 동문지로부터 현재 운수암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축대를 쌓았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는데 주로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규모로 보아 대규모의 건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운수암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한성 일대에는 다수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데, 성벽을 따라 노출되어 있는 면에서 주로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물은 대다수가 기와편이며, 일부 경질토기편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조사에서 무문토기 및 삼국시대 토기가 수습된 방신리 유물산포지도 무한성 일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문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벽의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은 그 특징으로 보아 삼국시대말 ~ 조선시대의 것으로 파악된다. 성곽의 존재로 보아 주변 지역에 성곽과 관련된 취락의 존재가 확실시 되며, 인접지역에 이와 관련된 고분군의 분포도 예상된다.

고성산성은 양성면 덕봉1리에 위치하고 있다. 무한성의 북쪽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한 능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한성은 동쪽과 남쪽의 시계가 원활하지만 서쪽과 북쪽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고성산성은 사방의 시계가 확보되어 있어 입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성산성은 무한성의 보조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고성산성 내에서는 무한성과 달리 우물지나 저수시설, 그리고 건물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성산성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산성 간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이후부터라고 판단된다.

만정리 토성은 공도면 만정리에 위치한 청소년 야영수련장 일대이다. 야영장이 건립되면서 거의 파괴되어 원형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남벽 일부와 북동쪽 성벽일부가 남아있다¹⁴⁾. 이 지역은 평야지대에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부에 해당되어, 해발 고도는 낮지만 주변의 조망은 원활하다. 성벽의 대부분은 청소년 야영수련장의 건립으

14)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로 인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벽을 통해 볼 때, 높이는 약 4m, 성벽 하단은 약 7~8m, 상면은 1.4m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사시대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관련 유적의 분포 가능성도 있다.

진사리 토성은 공도면 진사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는 쌍용물류센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¹⁵⁾.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의 서쪽에 형성된 낮은 구릉 지대로 남쪽에 안성천이 있으며, 주변은 평야지대이다. 지형적인 여건은 만정리 토성과 유사하다. 물류센터 건립 이전에는 토루의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안성지역에서 관방유적이 많은 것은 안성이 삼국시대 이후부터 교통·군사상의 주요 요충지였으며, 지리적으로 조선 후기 영남과 호남의 길목이었던 관계로 앞으로의 조사 진전에 따라서는 대규모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 안성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려~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양기리 유적, 신소현동 유적, 갈전리 유적, 매산리 유적 등이 있다. 공도읍에 위치한 양기리유적의 시굴조사에서는 구상 유구 및 수혈 등에서 백자 및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¹⁶⁾. 이외에도 안성시 신소현동 유적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4기, 회곽묘 4기, 주거지 21기, 수혈 14기, 경작유구 1기, 구 1기, 적석유구 4기 등 99기의 유구가 조사된 바 있다¹⁷⁾. 미양면 갈전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 24기, 건물지 1기, 기와가마 1기, 숯가마 1기, 소성유구 5기, 석곽묘 1기, 시대미상의 토광묘 2기와 기타유구 4기 등 39기의 유구가 조사되기도 하였다¹⁸⁾. 또 죽산면 매산리에서는 죽주산성 및 봉업사지¹⁹⁾와 관련된 매산리 고분군이 조사²⁰⁾되기도 하였다.

15)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위 글.

1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고속국도 40호선 안성-음성간(제5공구)건설공사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安城 新蘇峴洞遺蹟-코아루아파트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1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내 안성 갈전리 유적』

19) 京畿道博物館, 2002, 『奉業寺』
京畿道博物館, 2005,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 京畿道博物館, 2005, 『安城 梅山里 古墳群 發掘調査 現場説明會 資料』

III.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공도에서 양성에 이르는 321호지방도 확·포장 구간에 해당한다. 공사 예정구간의 범위는 총 연장 5,667m이고, 20m 너비로 확장될 예정이다. 좁고 길게 연장되는 도로의 특성상 다양한 지형 공간을 지나게 되므로 조사대상지를 지형적 특성에 따라 편의상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구간은 대부분 현재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어 작물이 파종되기는 하였으나, 구간 내의 구릉부에 형성되어 있는 밭에는 아직 작물이 많이 성장하지 않아 비교적 지표면 관찰이 용이하였다. 실제 현지 지표조사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 조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구간에 대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반복 관찰함으로써 최대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다.

각 구간별 위치·현황·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구간

공도택지개발지구의 북쪽에서부터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제40호선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까지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0+0 ~ STA 0+800까지이다. 지형적으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에는 얇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나 대체적으로 평탄하다. 현재의 도로와 동일한 선형을 유지하면서 너비만 확장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일대는 고속도로 건설과 택지개발 등의 이유로 최근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1구간의 남쪽에 위치한 공도택지구는 택지개발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담당하였는데, 조사대상지와 지형적으로 연결되면서 인접해 있는 바, 그 조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표조사는 2002년에 실시되었는데, 주변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고인돌·유물산포지, 초기철기시대 취락·분묘유적, 삼국시대 이후의 관방유적,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산포지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대상부지 내에서도 6개소의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8월에서 익년도 1월까지 고인돌 1기에 대한 발굴조사와 유물산포지 6개소에 대한 시굴조사를 거쳐 6개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중기 구석기시대 석기류 수습,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및 분묘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통일신라시대 고상건물지·우물·주거지, 고려시대 고상건물지·주거지·분묘군, 조선시대 주거지군 및 분묘군 등 다양하고도 많

은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된 유구는 총 867기에 달하는데, 이 중 중요 유구는 문화재청의 이전복원 지시에 따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원형주거지 1기, 고인돌 1기, 석관묘 1기, 소형 화장묘 2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2기, 통일신라시대 고상가옥 2동, 고려시대 주거지 1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를 이전·복원하였다. 이들 유구들은 사업부지 내에 조성한 공원에 복원토록 하였는데, 현재 공동택지개발지구의 북편에 위치한 공간에 “만정리 유적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할 때, 1구간 내에는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을 포함하여 선사에서 고려~조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구간은 공사에 앞서 정밀한 시굴조사가 요구된다.

2) 2구간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40호선의 북쪽에서부터 국지도 302호선이 접하는 곳까지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0+800 ~ STA 1+700까지이다. 이 곳은 반제리 유적이 위치한 해발 97m상의 능선에서 동남쪽으로 완만하게 뺏어 내린 구릉에 해당한다. 웅봉마을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곳을 정점으로 남쪽으로는 매우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오는데, 북쪽도 완만한 편이지만 남쪽에 비해서는 경사가 급한 편이다. 2구간의 남쪽은 현재 도로의 동쪽으로 다소 확장되며 S자 형상의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 일부 직선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구간의 주변은 구릉 양쪽으로 과수원이나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2구간의 남쪽에 위치한 초지에서 확인되는 토양은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석기문화층과 연관되는 古土壤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토양층에서 흔히 확인되는 석기 재료인 석영들이 많이 확인된다.

2구간의 남쪽을 지나는 도로는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제 40호선으로 도로건설에 앞서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반제리, 만정리, 양기리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반제리 유적에서 6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만정리에서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나 선사시대 문화층이나 관련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양기리 1지역에서는 토탄층과 수혈유구 25기가 확인되었다. 양기리 2지역에서는 수혈유구 16기와 적심 1기가 확인되어 주거지의 분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유적 중 반제리 유적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구석기시대 굽개 1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72기, 환호 1기, 목책열 1개소, 구상유구 7기, 토광묘 3기, 미상수혈유구 10기,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 석실분과 석곽묘 14기, 조선시대 토광묘 17기,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1기 등 총 136기의 유구가 조사된 바 있다.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유적이 조사된 반제리와 시굴조사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된 만정

리는 이번 조사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형적인 여건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제리 유적은 조사대상지와 사이에 좁은谷地가 있어 지형적으로 다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능선에 의해 연결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동일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구간에 대해서는 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광역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3구간

국지도 302호선과 접하는 곳에서부터 심교 버스정류장까지의 구간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1+700 ~ STA 2+200까지이다. 이곳은 현재 도로가 동쪽으로 굽어 있는데, 국지도 302호선의 분기점에서부터 심교 버스정류장까지 직선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도로가 지나는 구간은 남산들이라고 불리는谷底地形로 현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지형 상으로도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4구간

심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배미마을 진입로까지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2+200 ~ STA 3+300까지이다. 마을진입로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노거수가 있다. 마을 진입로는 얇은 구릉의 정부에 해당하는데, 건너편에는 (주)세일콘 부설연구소가 있다. 이 구간도 현재 도로가 동쪽으로 굽어 있다. 이 구간은 심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동화천막을 지나기까지는 현재의 도로선형을 유지하다가 동화천막을 지나면서 직선화되어 ‘그루터기’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지나 (주)세일콘 부설연구소의 야적장까지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4구간의 남쪽은 얇은 구릉이지만, 북쪽의 도로가 신설되는 곳은 방신리 앞들에 해당되며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지형적으로도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5) 5구간

배미마을 진입로에서부터 덕봉마을 버스정류장까지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3+300 ~ STA 4+100까지이다. 배미마을 진입로에서부터 ‘동일기계공업’까지 S자형으로 휘어 있는 도로는 직선화될 예정이며, ‘동일기계공업’에서부터 덕봉마을 정류장까지의 구간은 현재 도로의 선형을 따라 확장될 계획이다. 이곳은 대이산(230m)의 동쪽사면에 해당되며, 이와 연결되는 구릉은 배미마을을 지나면서 남동쪽으로 얇은 구릉을 형성하게 된다. 구릉의 북사면 즉 덕봉마을 쪽으로는 아주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덕봉마을 건너편으로

는 현재 새터말로 통하는 도로의 신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유적의 분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6) 6구간

덕봉마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삼공물산(주)의 진입로까지 구간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4+100 ~ STA 5+0까지이다. 이 구간의 서편에 위치한 덕봉 2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는 德峰書院이 있다. 덕봉서원은 숙종 21년 陽谷 吳斗寅(1624~1689) 선생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았던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행정구역상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10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서원으로 인해 6구간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은 서원마을, 동쪽에 위치한 넓은 들은 서원 앞들로 불린다. 현재 국지도 321호는 마을이 위치한 구룡의 말단부로서 경작지로 이용되는 평지와와 경계에 해당되는 곳을 지나는데, 도로의 확·포장은 동쪽, 즉 경작지 쪽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덕봉서원과의 이격거리가 60m 가량으로 매우 인접해 있으나, 도로 확장공사 예정구간은 지형적으로 다소 낮은 경작지 일대에 해당되며, 서원의 반대편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유적의 분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7) 7구간

삼공물산(주) 진입로에서부터 국도 23호선과 접하는 지점까지의 구간이다. 도로 설계상으로는 STA 5+0 ~ STA 5+671까지이다. 이 구간은 삼공물산(주)를 지나면서부터 직선화되어 구시랑치기들을 가로지른다. 또 동서로 뻗어있는 해발 37m 내외의 얇은 구룡의 동쪽 일부를 포함하며, 북편의 23번 국도와 'T'자상으로 접하게 된다. 구룡 일대는 현재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하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유적의 분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지표조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명	위치	연장	조사 내용	비고
1구간	STA 0+0 ~ 0+800	800m	1구간 남쪽에 접하여 공동유적 (택지개발지구)	정밀시굴조사 필요
2구간	STA 0+800 ~ 1+700	900m	2구간 남쪽 고토양층 반제리 유적과 인접	광역시굴조사 필요
3구간	STA 1+700 ~ 2+200	500m	유적 분포가능성 낮음	공사 시행 가능
4구간	STA 2+200 ~ 3+300	1,100m	유적 분포가능성 낮음	공사 시행 가능
5구간	STA 3+300 ~ 4+100	800m	유적 분포가능성 낮음	공사 시행 가능
6구간	STA 4+100 ~ 5+0	900m	유적 분포가능성 낮음	공사 시행 가능
7구간	STA 5+0 ~ 5+671	671m	유적 분포가능성 낮음	공사 시행 가능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용인대학교박물관에서는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한국해외기술공사 · 동부엔지니어링(주)의 의뢰를 받아 공도~양성간 지방도 321호 확 · 포장공사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대상범위는 도로의 특성상 좁고 긴 線形을 이루고 있는 바, 이에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대상범위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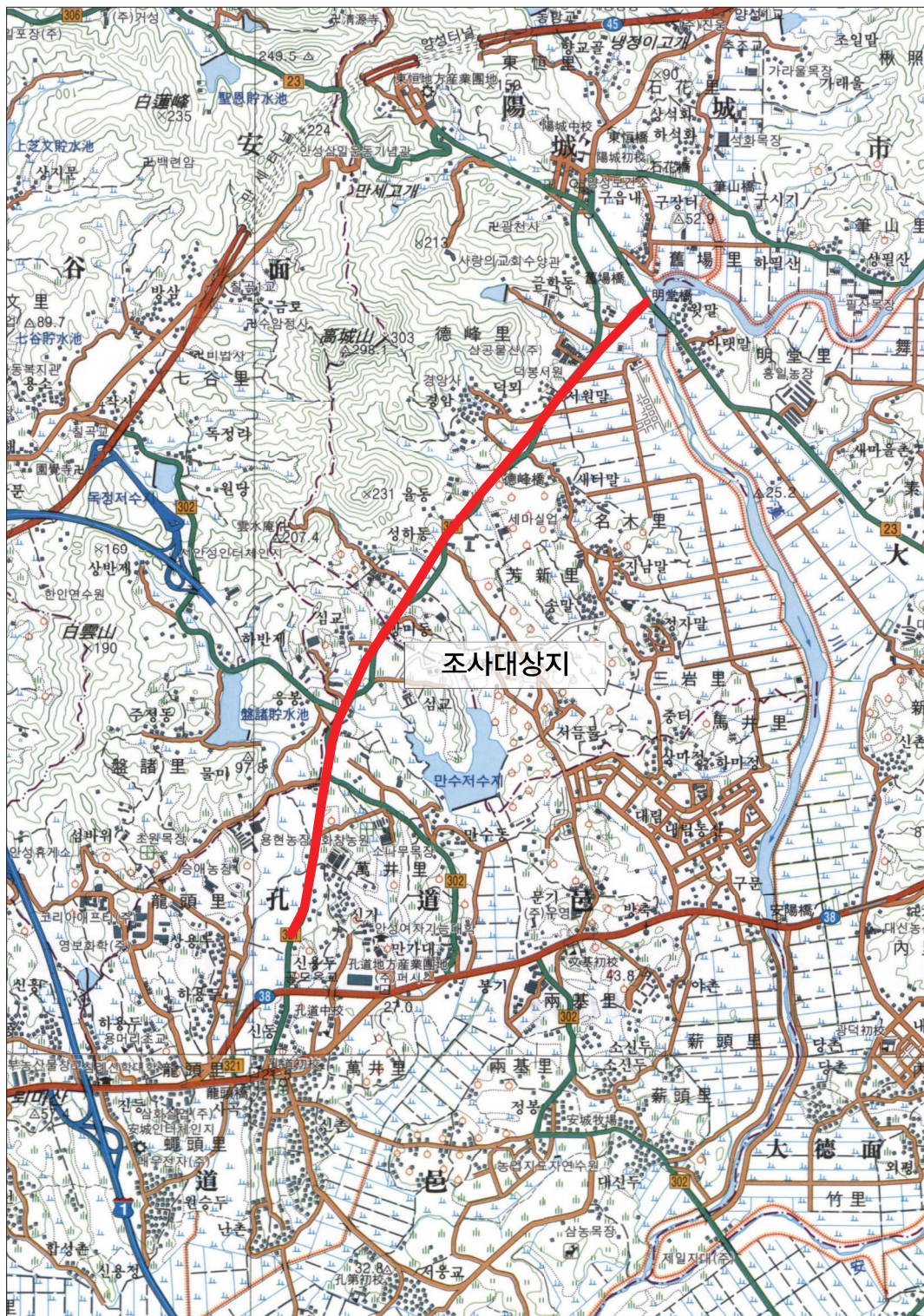
1구간의 남쪽에 위치한 공도택지개발지구는 공사에 앞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일부 遺構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공원에 이전 · 복원되어 있다. 이번 조사대상구간은 공도 만정리 유적과 매우 인접해 있고 입지적 여건이 동일하여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사에 앞서 정밀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구간은 서편에 인접하여 반제리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에 위치한 1구간과 동일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표상에 古土壤層으로 추정되는 토양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있는 바, 공사에 앞서 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광역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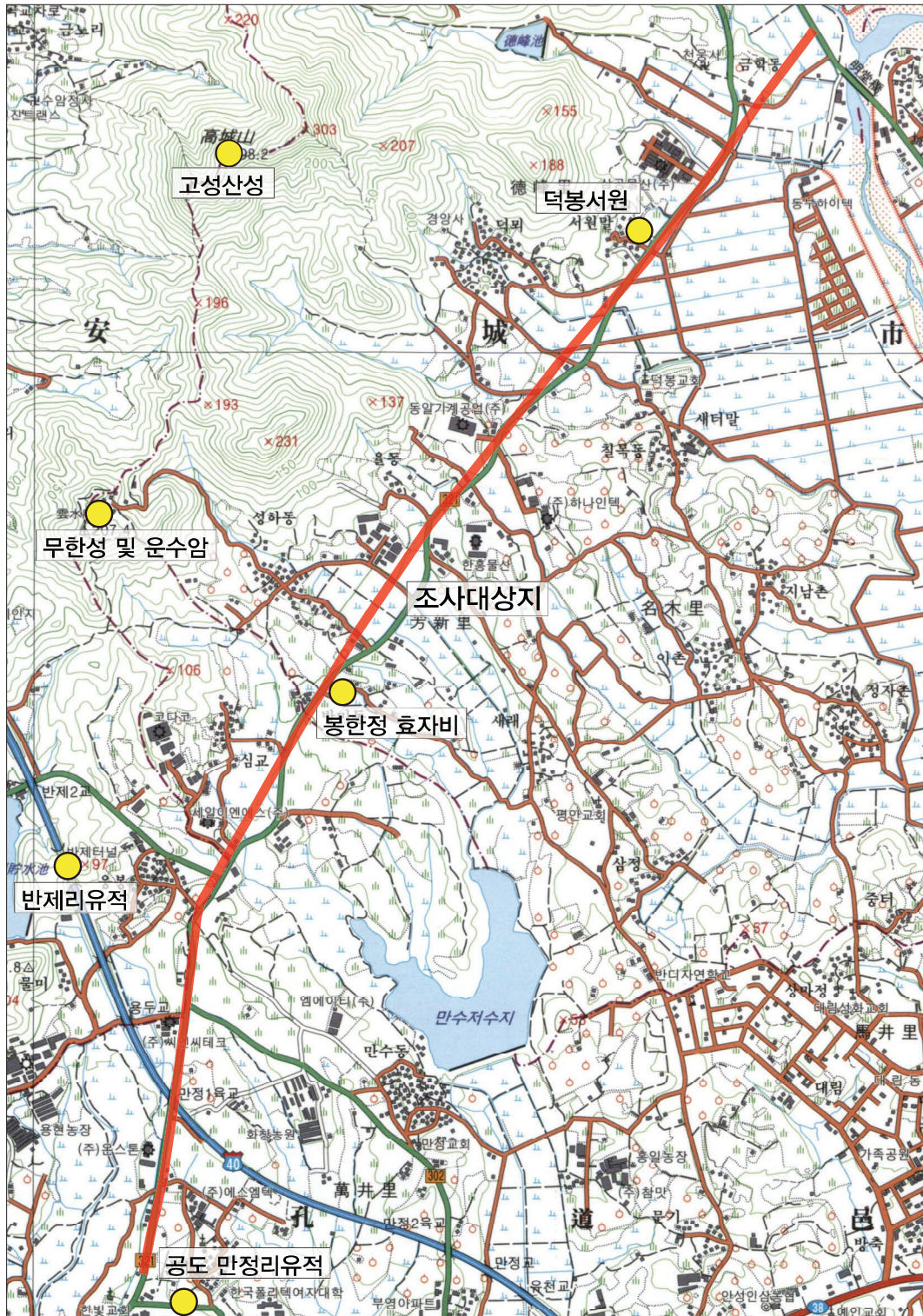
3 · 4 · 5 · 6 · 7구간의 경우 지표상에서 유물 혹은 유구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표조사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초목이 무성한 현재의 여건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사 시행 중 지하에서 埋藏文化財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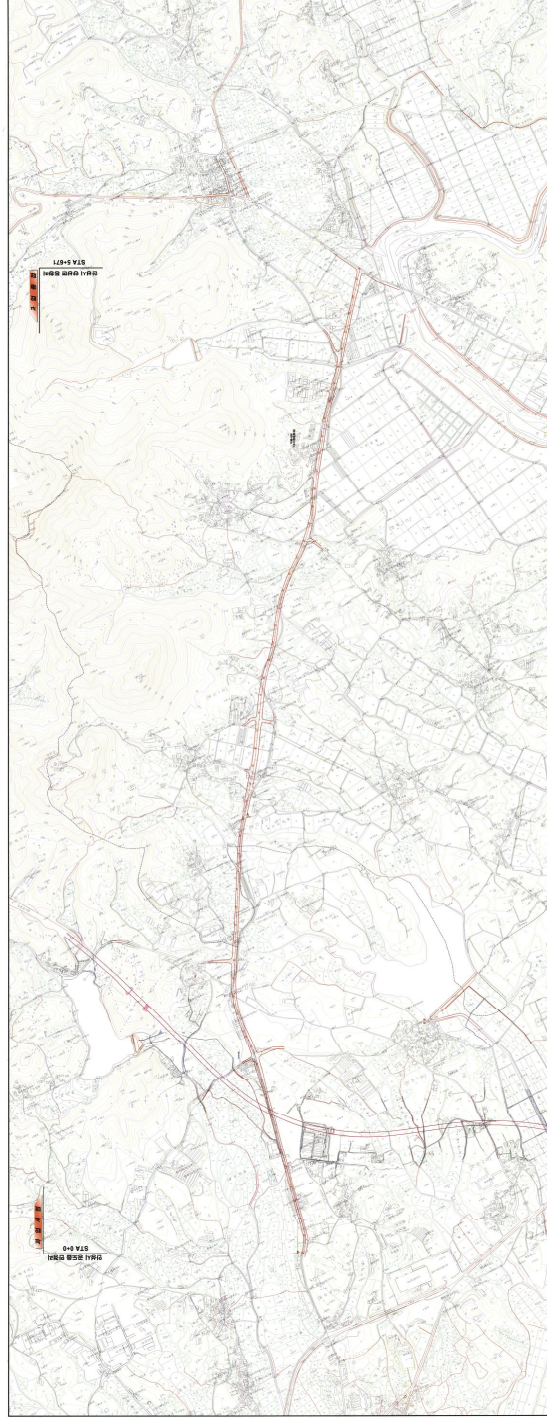
지도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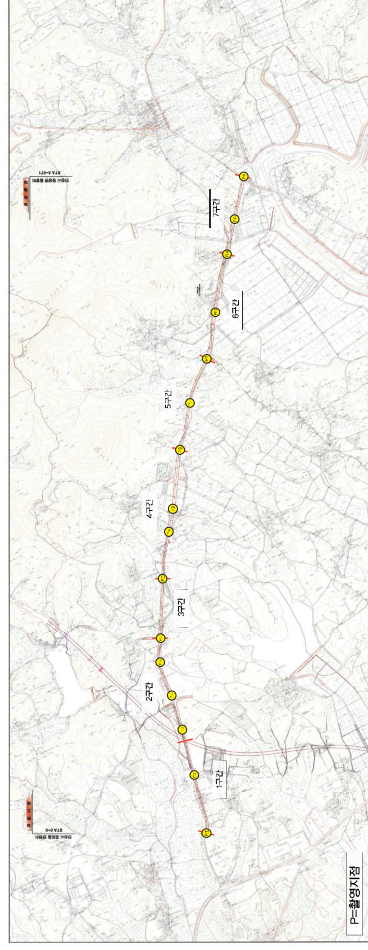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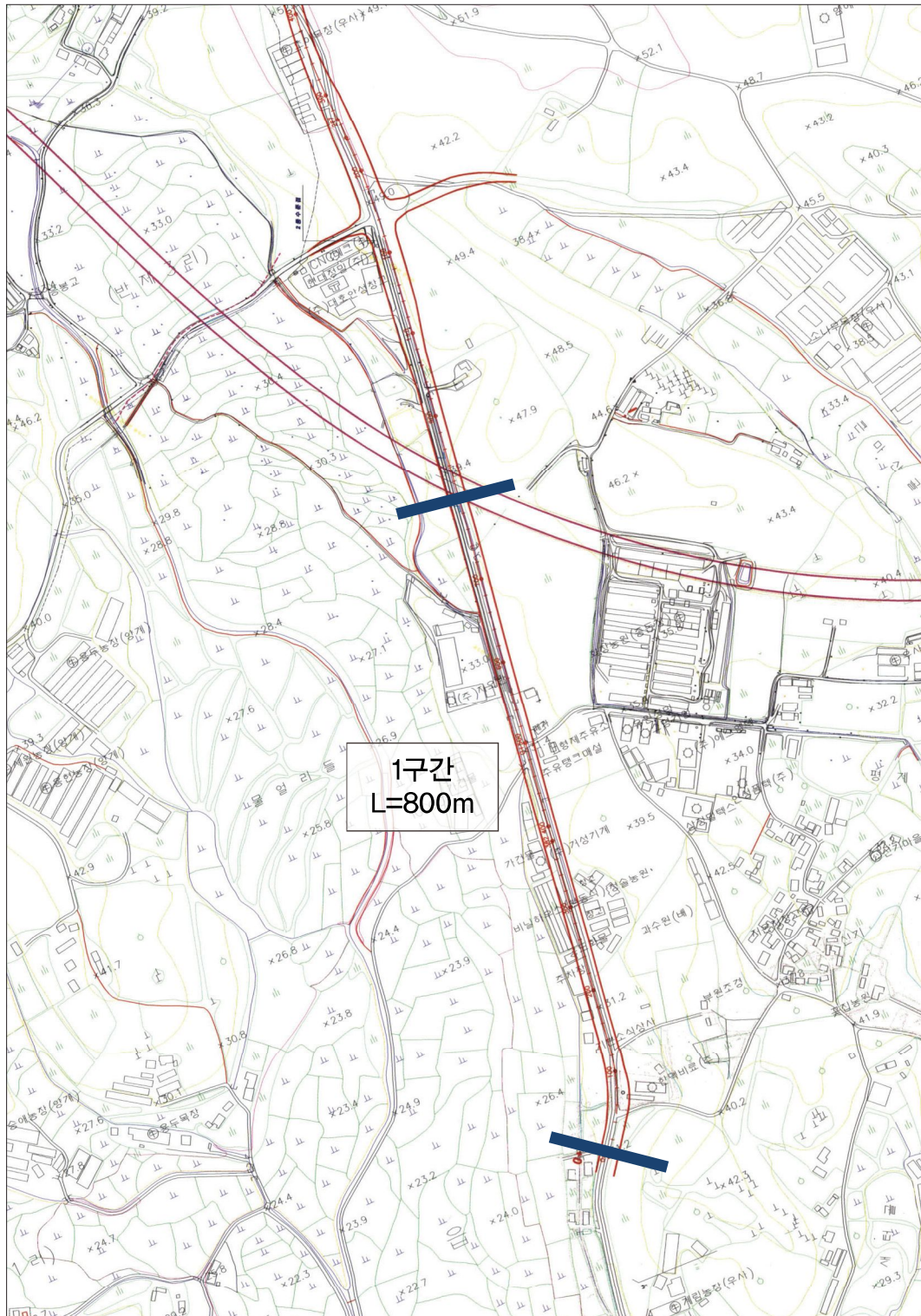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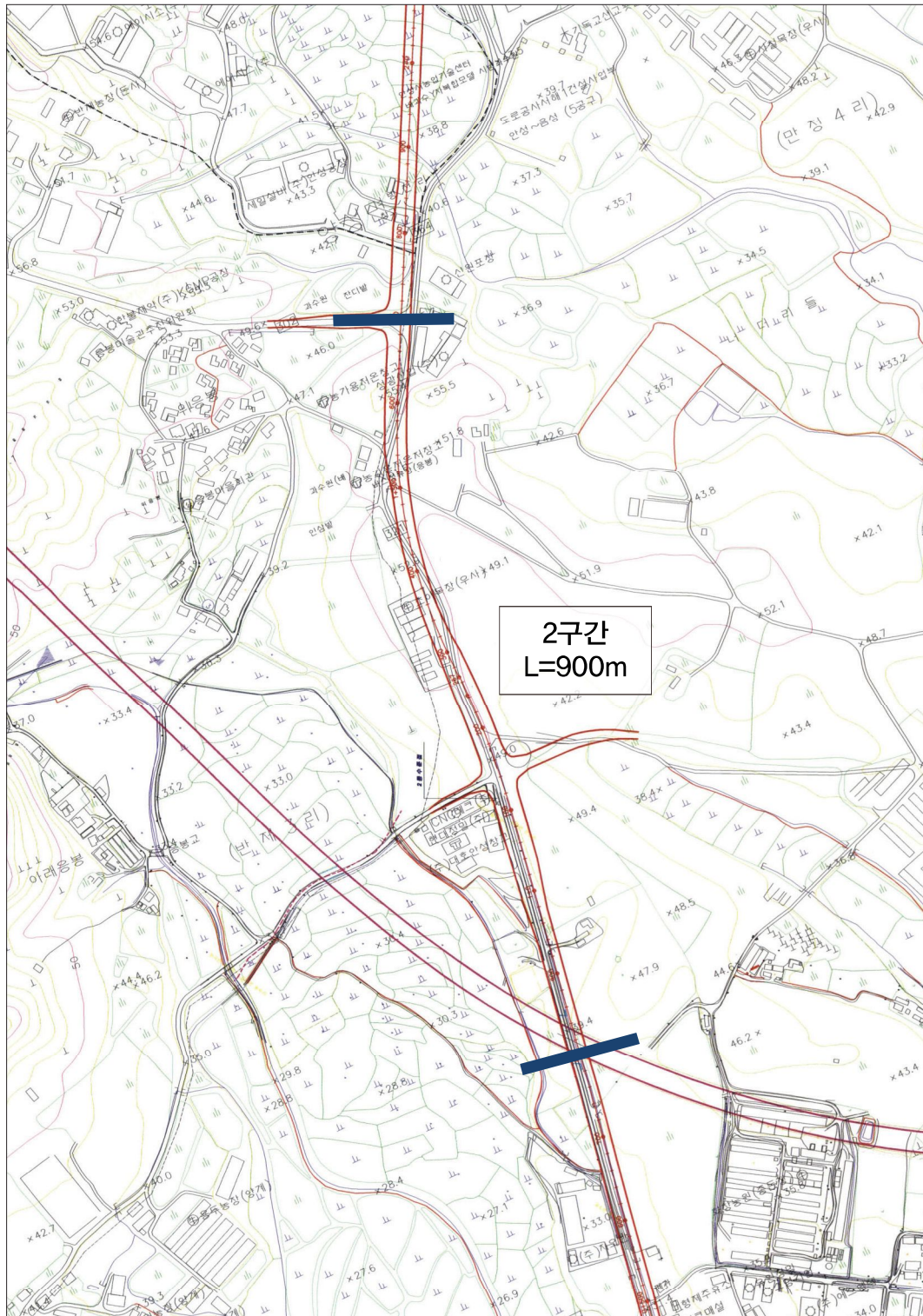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현황도(광도/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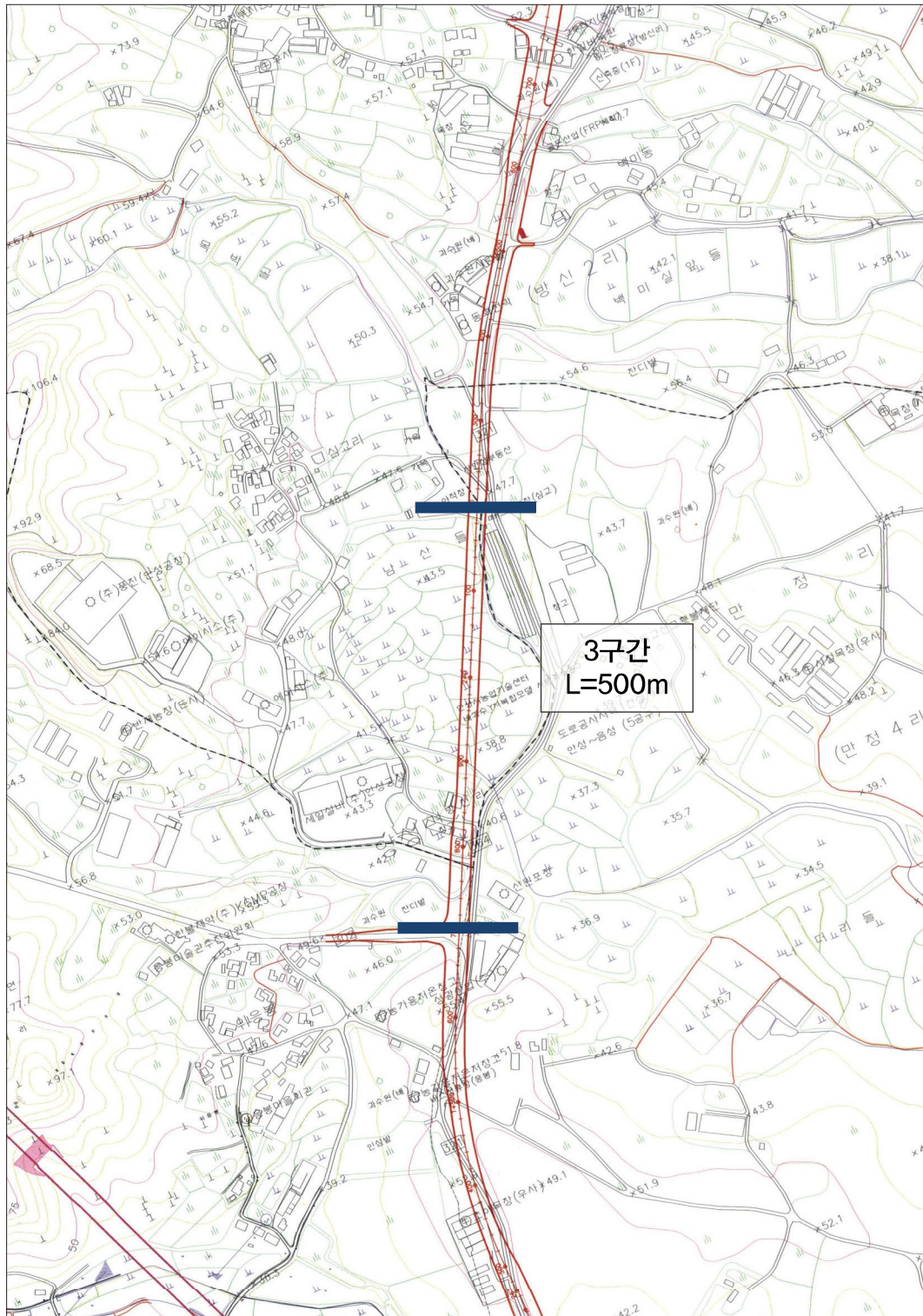
도면 4. 조사대상지 구간구분 및 활영지점 위치도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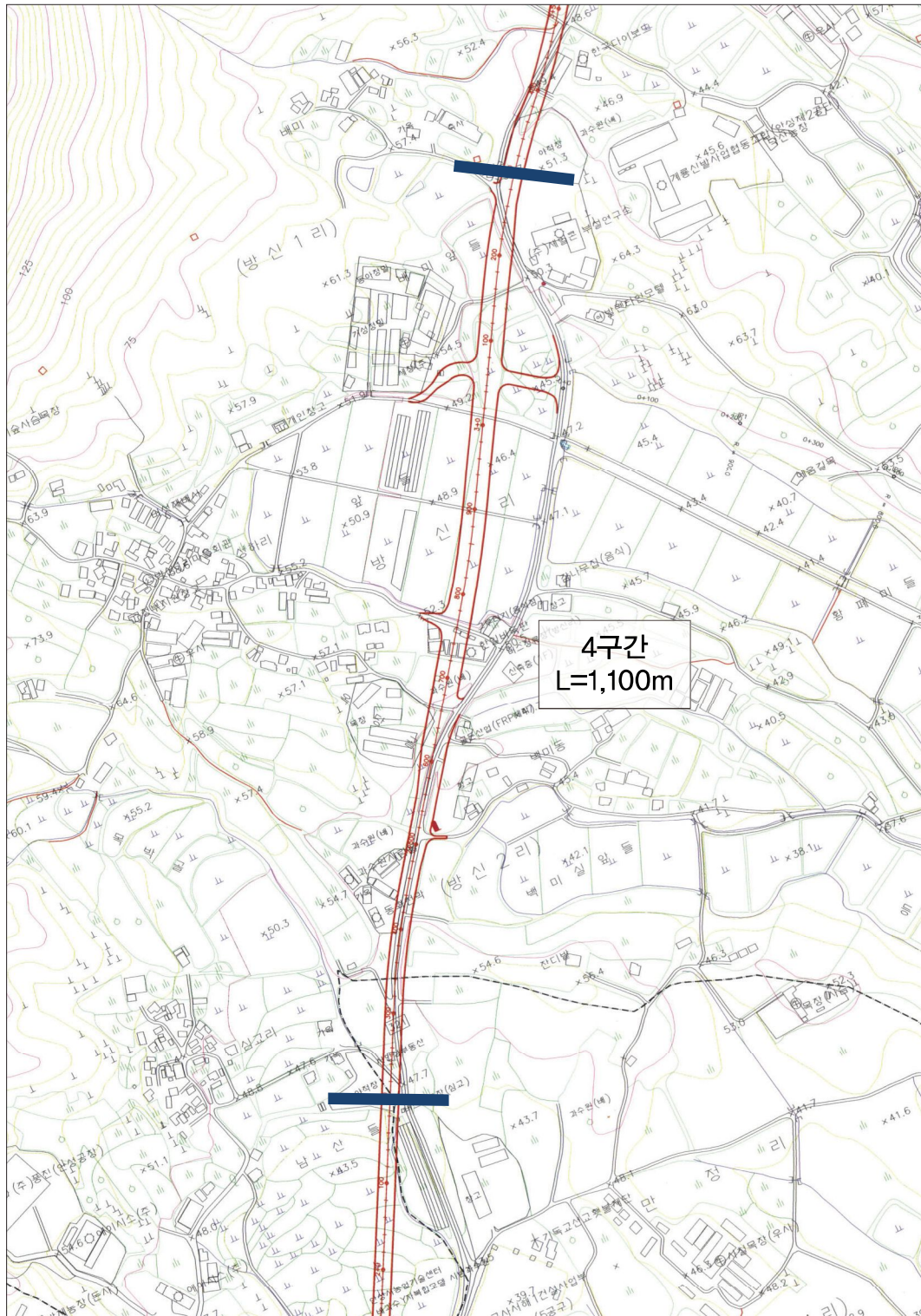
도면 5. 1구간 현황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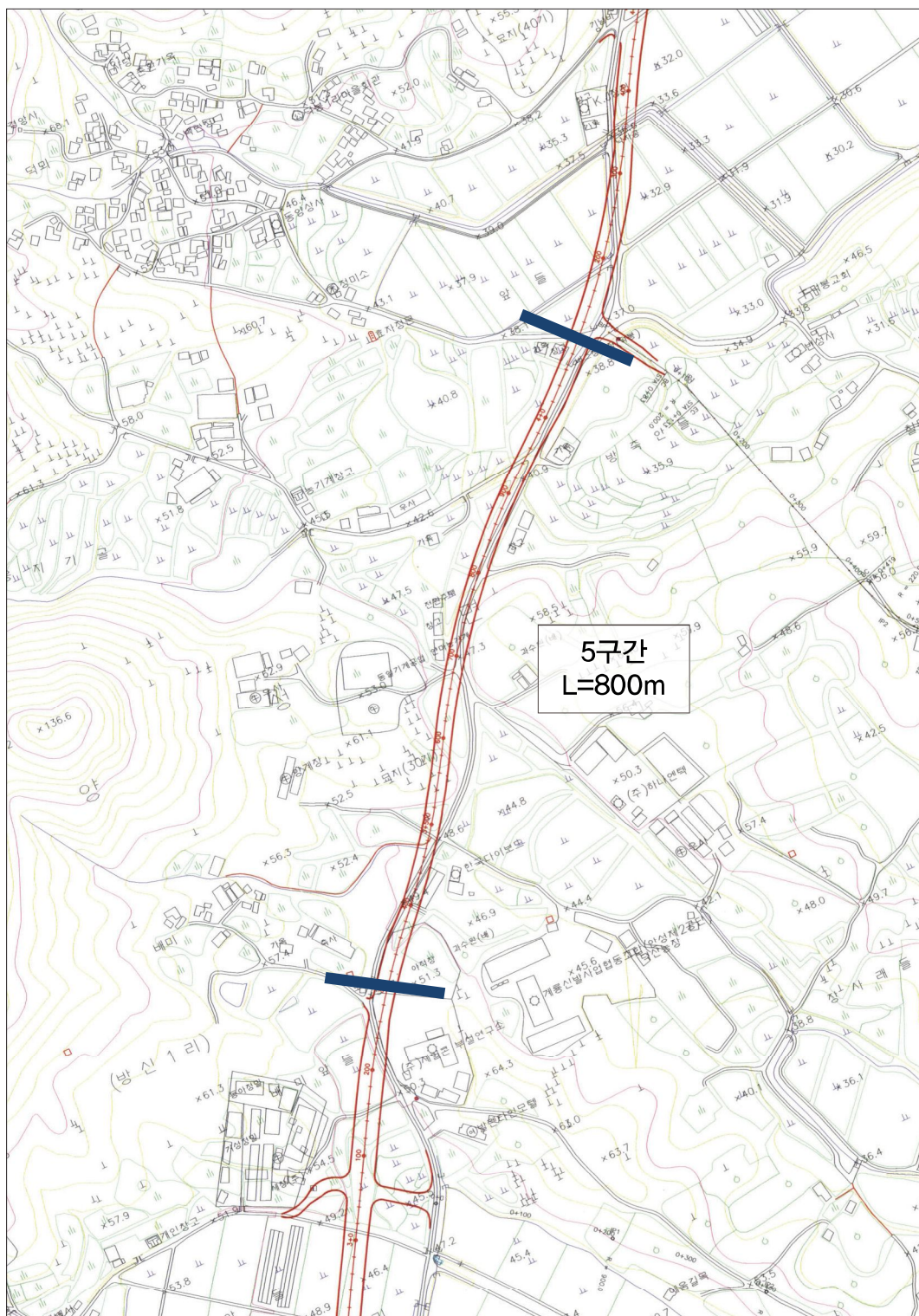
도면 6. 2구간 현황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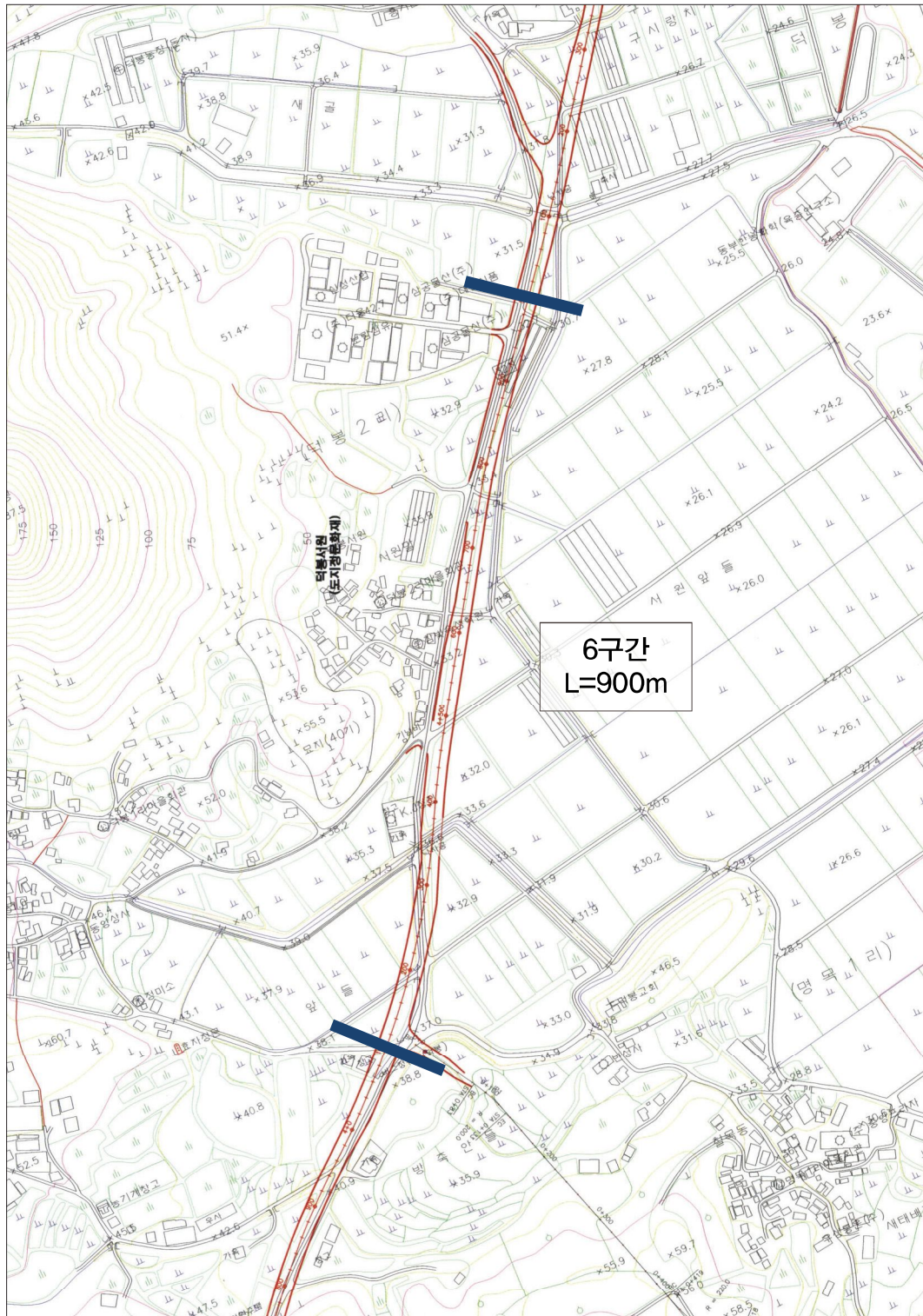
도면 7. 3구간 현황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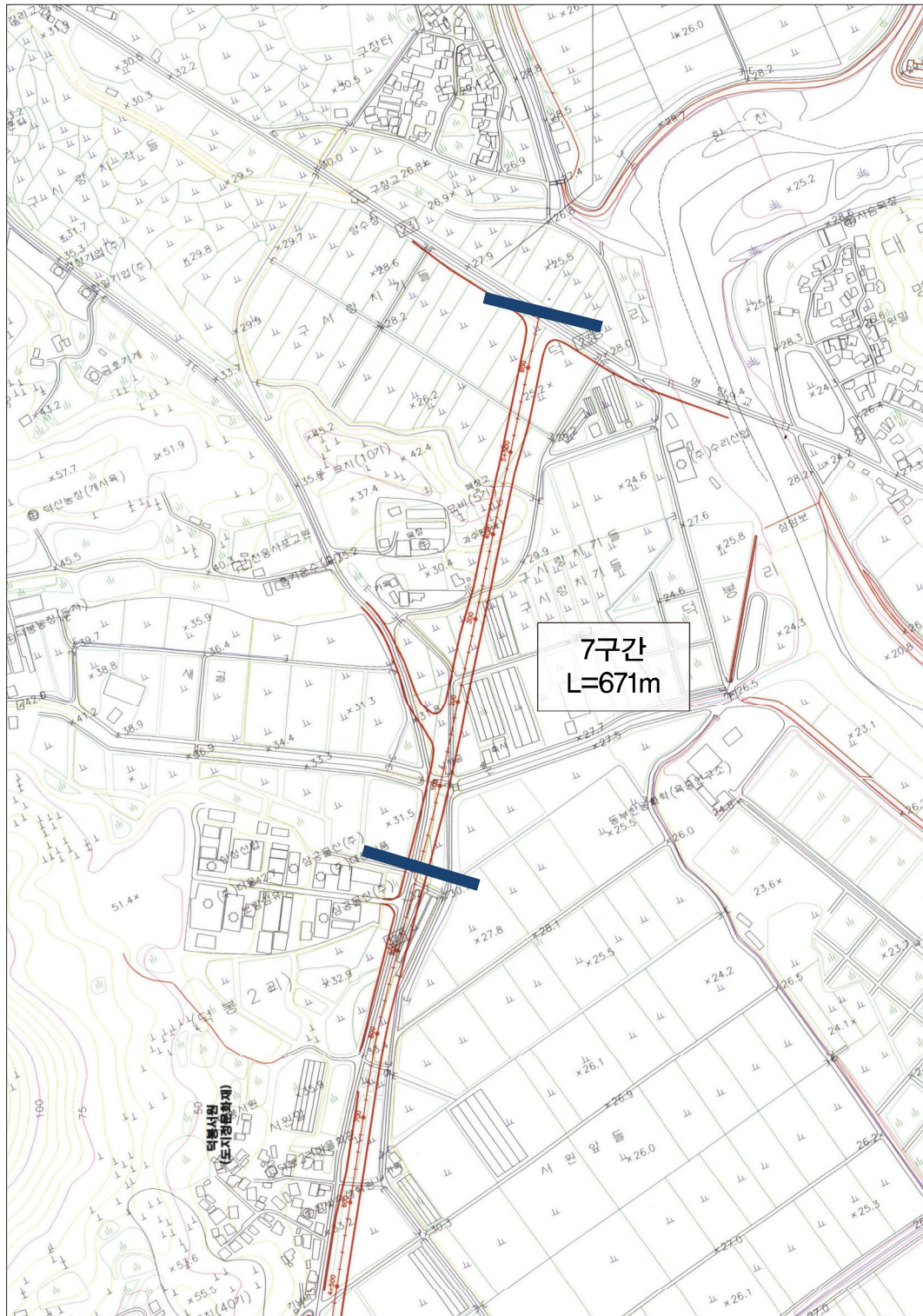
도면 8. 4구간 현황도(1/5,000)



도면 9. 5구간 현황도(1/5,000)



도면 10. 6구간 현황도(1/5,000)



도면 11. 7구간 현황도(1/5,000)



사 진



사진 1. 1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① 남→북)



사진 2. 1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② 남→북)



사진 3.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③ 북→남)



사진 4.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③ 남→북)



사진 5. 2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④ 북→남)



사진 6.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④ 남→북)



사진 7.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⑤ 북→남)



사진 8.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⑤ 남→북)



사진 9. 2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㉔ 북→남)



사진 10. 3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㉔ 남→북)



사진 11. 3구간 도로 신설구간 남쪽 전경 (촬영지점 ⑥ 남→북)



사진 12. 3구간 도로 신설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⑦ 북→남)



사진 13. 4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⑦ 남→북)



사진 14. 4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⑧ 북→남)



사진 15. 4구간 중앙부 전경(촬영지점 ⑧ 남→북)



사진 16. 4구간 중앙부 전경(촬영지점 ⑨ 북→남)



사진 17.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⑨ 남→북)



사진 18.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북쪽 전경(촬영지점 ⑩ 북→남)



사진 19. 4구간 북쪽 도로 신설구간 세부 전경(북→남)



사진 20. 4구간 북쪽 배미마을 입구 노거수



사진 21. 5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⑩ 남→북)



사진 22. 5구간 남쪽 전경(촬영지점 ⑪ 북→남)



사진 23. 5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⑪ 남→북)



사진 24. 5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⑫ 북→남)



사진 25. 6구간 남쪽 전경 (촬영지점 ⑫ 남→북)



사진 26. 6구간 남쪽 전경 (촬영지점 ⑬ 북→남)



사진 27. 6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⑬ 남→북)



사진 28. 6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⑭ 북→남)



사진 29. 7구간 남쪽 전경 (촬영지점 ㉔ 남→북)



사진 30. 7구간 남쪽 전경 (촬영지점 ㉕ 북→남)



사진 31. 7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⑮ 남→북)



사진 32. 7구간 북쪽 전경 (촬영지점 ⑯ 북→남)



사진 33. 공도택지지구 내 만정리 유적공원



사진 34. 용두리유적 현재 모습(물류단지 조성 후)



사진 35. 반제리유적 현재 모습 (도로 개설 후 - 남에서)



사진 36. 반제리유적 현재 모습 (도로 개설 후 - 북에서)



사진 37. 무한성 내 운수암 전경



사진 38. 무한성 남쪽 성벽 근경



사진 39. 무한성 동쪽 성벽 세부



사진 40. 무한성 서쪽 성벽 세부



사진 41. 덕봉서원 전경



사진 42. 봉한정 효자비각

용인대학교박물관학술조사보고 23

안성 공도~양성간 321호지방도 확 · 포장공사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발 행 일 : 2008년 6월

편집 · 발행 : 용인대학교박물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번지

전 화 번 호 : 031) 8020-3002

팩 스 : 031) 8020-3003

인 쇄 : (주)진인진 02) 507-3077 www.zininzin.co.kr
